

Magazine

五

2020

January + February

Magazine 全

Vol.33 January + February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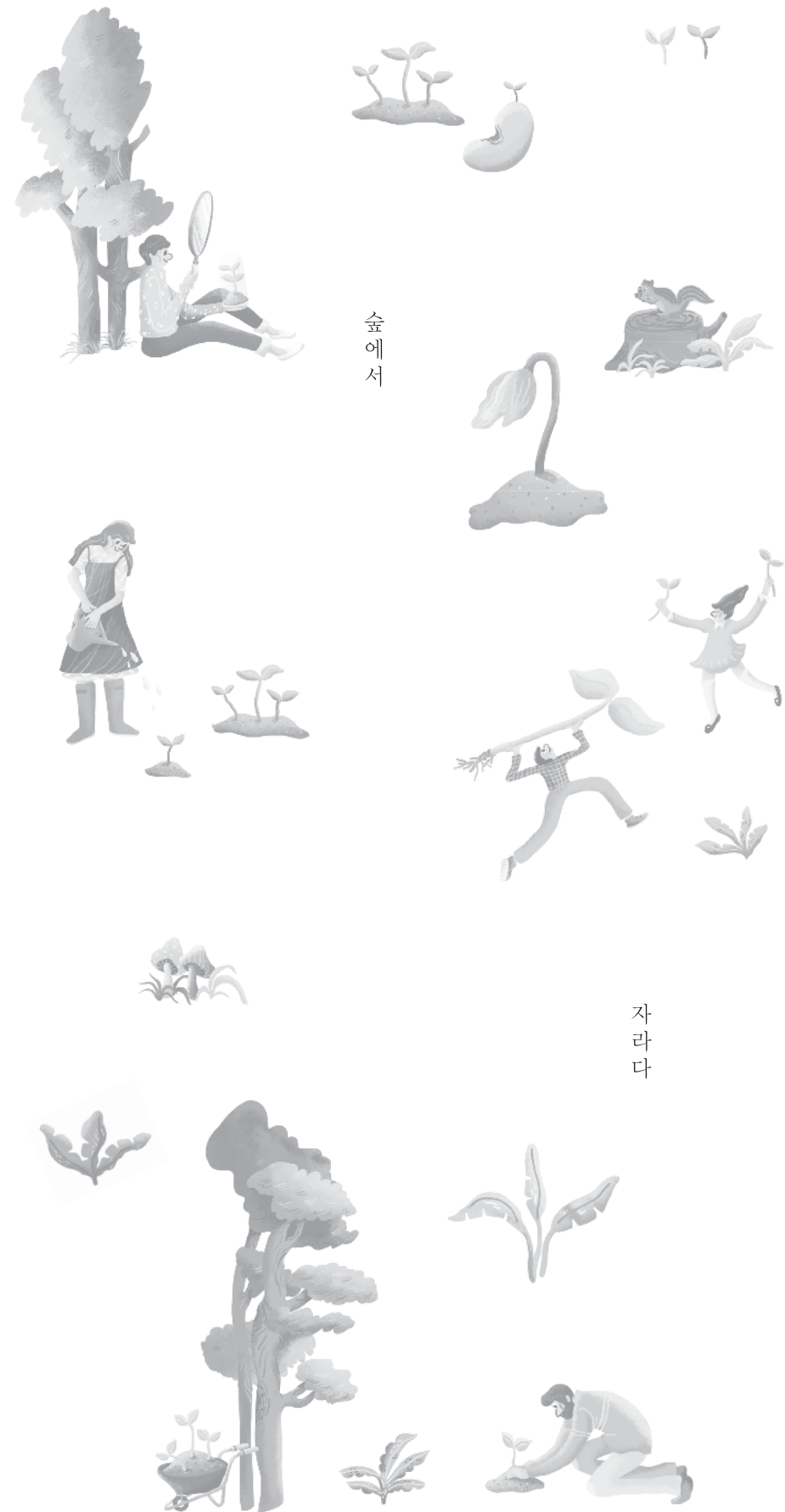
강령





씨앗, 작은 세상을 품다

단단한 흙에 겨우 제 몸을 세웁니다. 모든 생명의 시작은
이토록 작고 연약한 존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두
계절을 나면, 금세 가지를 뻗을 겁니다. 그늘을 만들어
숲을 이루고, 우리의 삶에 가치를 더할 겁니다. 그렇기에
이 작은 생명의 몸짓은 너무나도 소중한합니다.





숲에서



숨을 돌리고



여유를 즐기세요

숲에서 숨을 돌리고, 여유를 즐기세요.

산을 오르면서 한가하게 주위를 둘러보세요. 군데군데 봄이 새어 나오는 게 눈에 보입니다. 성실하게 계절을 갈아입으며 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던 겁니다. 도심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계절의 마디가 숲에서는 이토록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태껏 잊고 있던 자연의 모습입니다. 정상에 올라서 눈을 맞추고 지그시 바라 보세요, 우리가 살아온 자리를 한 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하루는 매번 비슷하고 삶의 환경은 좁을지언정, 실은 우리가 이토록 넓은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조금은 실감이 되시나요? 우리의 삶이 제법 근사한 풍경처럼 보이지는 않나요. 숲에 자주 들르세요, 둘러서 이렇게 살아온 자리를 확인하고, 마주 보세요, 손금 처럼 갈라진 길을 훑으며 자연과 사정을 간직한 사람들의 일상을 눈으로 쓰다 들어보는 겁니다. 숲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삶을 되돌아보고 방향을 찾는 일입니다. 숲은 우리에게 삶의 태도를 가르치고, 위로를 안겨주며, 때로는 기운을 차리게도 합니다. 이처럼 <매거진 숲>도 작은 안식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더욱 푸르게 물들기를 소망합니다. 잠시나마 <매거진 숲>에서 숨을 돌리고 여유를 즐기다 가시길 바랍니다.

2020년 2월
산림청장 **박종호**

CONTENTS

www.forest.go.kr

〈Magazine 숲〉의 앱 매거진을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하다

06 Prologue

씨앗, 싹을 틔우다
작은 세계를 피우다

08 Special Theme 1

숲에서 삶을 묻다
생명, 그 아름다운 성장의 시나리오

10 Special Theme 2

숲에서 공간을 향유하다
도심에 식물 문화를 만들다
- 서울식물원, 씨앗도서관

16 Special Theme 3

숲에서 사람을 만나다
숲의 가치를 보존하다
- 산림생명공학연구과 김용욱 박사



누리다

20 숲이 흐르다

사람과 숲이 공존하기 위한 노력
- 친환경벌채

24 전지적 임업인 시점

세계인의 입맛을 잡는 전통식초를 꿈꾸다
- 초산정 한상준 대표

28 자연이 차린 밥상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음식 공합
- 고사리와 돼지고기

32 반려 식물 가이드

건조한 실내 습도를 높이다
- 아레카야자



배우다

34 산촌에 머물다

귀산촌 정착을 위한 첫걸음
- 산촌의 삶이란 무엇일까?

38 제철 숲 여행

다소곳이 쌓인 눈의 고장
- 강원도 인제, 곰배령

42 숲 속 도서관

이름으로 만나는 나무 이야기
- 우리 나무 이름 사전

46 함께하는 산림

산불로부터 산림과 국민을 지키는
- 산불위험예보시스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50 산림청 소식 / 독자이벤트

2019 11+12월호 독자의견

VOL.33 JANUARY + FEBRUARY 2020



COVER STORY

모든 생명은 자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무와 사람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손과 발을 써서 세계를 이해하고 나아가듯, 나무는 씨앗에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며 환경을 이해합니다. 이번 〈Magazine 숲〉에서는 씨앗과 사람을 함께 배치하여, 작은 씨앗을 어르고 이해하는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Magazine 숲〉은 산림청에서 발간하는 산림 문화 전문 매거진입니다. 〈Magazine 숲〉은 한국 간행물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Magazine 숲〉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발행일 2020년 02월 28일 **발행** 산림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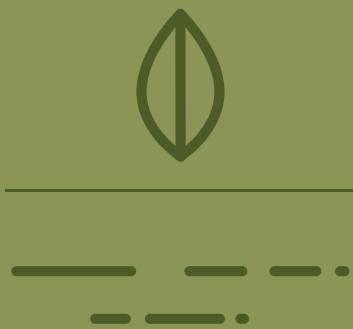
기획 산림청 대변인실 magazinesup@korea.kr

편집·디자인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m.com

A Seed

씨앗,



Sprouts

싹을 틔우다

모든 식물은 작은 씨앗에서부터 탄생합니다. 이 연약한 존재로부터 삶의 한살이가 시작 되는 겁니다. 충분한 습기를 머금은 흙에 제 몸을 누이고 때를 기다립니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게 씨앗은 세상의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입니다. 태아가 어머니의 품에서 세상 밖의 소리를 경청하듯, 씨앗은 자연의 태교를 감상합니다. 생명의 숨소리를 듣습니다. 단단한 과육에서 떨어져나온 씨앗은 땅에서 양분을 섭취합니다. 알맞은 온도를 짚고,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혹여 토양이 오염되지는 않았는지, 주기적으로 생육 과정을 살펴 주어야 합니다. 통풍이 잘되는 반양지에서 돌보는 것이 좋고, 물을 줄 때는 씨앗이 유실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씨앗이 성장하려는 의지만큼, 거드는 힘도 필요 합니다. 곧, 씨앗은 씨껍질을 벗고 싹을 틔울 겁니다. 온 힘을 들어 가까스로 자신의 세계를 파우고, 세상과 눈부신 첫 만남을 갖게 됩니다. 자신을 줄곧 돌보았던 자연의 얼굴들을 비로소 눈에 담아봅니다. 이토록 작고 사소한 존재가 여러 관심과 수고를 먹고 자랐다는 사실이 새삼스럽습니다. 씨앗은 부지런히 자라 그에 보답하듯 숲을 드리울 겁니다.

생명,

그 아름다운 성숙과 성장의 시나리오

글 이동혁 풀꽃나무 칼럼니스트



● 모든 생물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고 태어난다.

처음부터 그 전부를 갖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성장 과정에서의 시련과

혹독한 통과의를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습득한다.

어미 몸에서 떨어져 나온, 그 순간부터가 시작이다. 그때부터 씨앗은 순전히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 떨어진 자리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게 식물의 운명인지라 작은 씨앗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스스로 뭘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작은 씨앗에게 닥칠 앞날은 아무도 알 수 없어 불안하기만 하다. 하지만 아주 예측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어떤 일이 닥친대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마련된 생명의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이다.

캄캄한 흙 속에 내던져졌지만, 무일푼이 아닌 것만 해도 그렇다. 씨앗은 아직 어미에게서 받은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는 몸을 뒤흔다. 배젖에 저장된 양분은 어미가 마지막으로 선물한 삶의 밑천이다. 떡잎에 담겨진 배젖의 힘으로 살길을 모색하면 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직감하면 감지된 중력의 방향으로 첫발을 내딛는다. 그러고는 물과 양분을 찾아 더 깊고 먼 곳으로 내려간다.

그 다음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할 차례다. 까치발을 하고 서서 빠르게 바깥을 내다보면 세상은 온통 초록빛이다. 하지만 그 세상이 얼마나 가혹한 시련과 치열한 경쟁으로 가득한지 씨앗은 알지 못한다. 그저 빛이 탐지되는 방향으로 본인을 펼칠 뿐이다. 본인을 내고 나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진 떡잎을 떨궈낸다. 진짜 시작은 그때부터일지 모른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자립의 순간이다. 씨앗은 곧 알게 된다. 햇빛은 목적이자 수단이라는 사실을. 햇빛을 받아야 빨리 클 수 있고, 빨리 키를 높여야 햇빛을 독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물과 양분과 햇빛을 자비롭게 나눠주지만 때로는 모진 바람과 추위와 더위와 가뭄과 폭우로 괴롭힌다. 쓰러질 듯 말 듯 흔들리는 가운데 더욱 단단한 줄기를 갖거나 깊은 뿌리를 내면서 스스로 사는 법을 터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반복적

으로 혹독한 테스트를 거치면서 성장하다 보면 여러 위협 요인으로 부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자립심이 길러진다. 성장 과정에서의 시련을 통해 자연이 만든 질서에 순응하고 적응하는 법을 배우면서 결국 생태계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다. 태줄을 끊고 어미 몸에서 떨어져 나온 순간부터 곧바로 세상이라는 현실과 맞닥뜨린다. 물론 사람에게도 그에 맞게 마련된 생명의 시나리오가 있다. 식물의 씨앗에게 배젖이라는 양분이 있듯이 사람의 유아기에는 양육기간이 존재한다.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운 시기에 양다리의 힘을 길러서 첫걸음을 뗄 때까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후 부모 손에서 떠나 넘어질 듯 말 듯 불안정한 시기를 거쳐 안정된 걸음걸이를 하게 될 때까지 과정을 겪는다. 다른 어떤 동물보다 오래 걸리는 사람의 그 과정은 세상에서 홀로 살아가기 위한 기초적인 힘을 기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 터득한 지혜는 사회에 나가서도 유용하다.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고초들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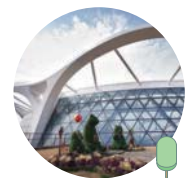
모든 생물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고 태어난다. 처음부터 그 전부를 갖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성장 과정에서의 시련과 혹독한 통과의를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습득한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성장하기까지 많은 노력과 학습이 필요하듯이 사람도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연거푸 거쳐야 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 충돌과 확장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일이기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 과정을 통해 씨앗이 커다란 생태계의 일원이 되듯 비슷한 과정을 통해 인간은 참다운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 ☺

도시 속에 생태문화를 만들다

서울식물원, 씨앗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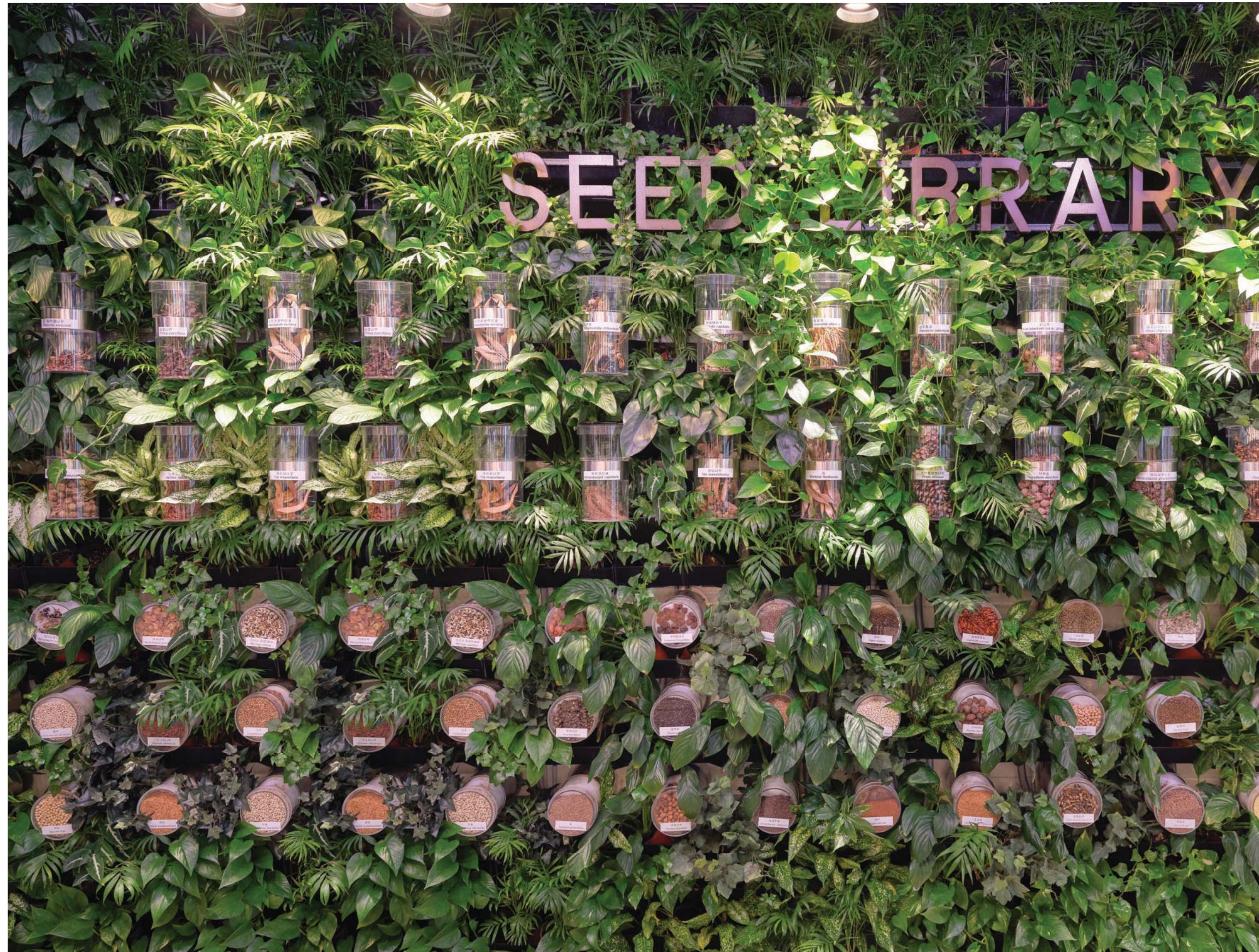
도시에 초록의 발자취가 사라져간다. 급변하는 스마트 시대에 식물을 돌보고 기르는 일은 지나치게 느리고 번거로운 일처럼 여겨진다. 도시민들은 서서히 자연생태로부터 멀어지고 생태감수성이 무뎌진다. 그렇게 숲과 점차 멀어져간다. 마곡에 위치한 '서울식물원'은 자연과의 소통이 부재한 도시민들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와 시민, 자연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도시민의 삶에 초록 물을 들인다.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 편집실 사진 김병구



서울식물원은

'서울이 공원이며 시민이 공원의 주인'이라는 철학을 담고, 시민들에게 식물이 전하는 안식과 위로, 배움과 영감을 주고자 조성되었다.





01 12개국에 서식하는 식물로 구성된 온실은 이국적인 정취를 풍긴다.

02 철저한 환경관리를 통해 지중해와 열대기후 식물을 보호하고 있다.

03 각 나라의 환경 및 문화를 바탕으로 발전된 독특한 정원문화를 엿볼 수 있다.

서울식물원은 단순히
좋은 쉼터로 존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식물이 문화를 주도하고,
나아가 생활양식을 제시하는
새로운 도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서울식물원은 서울에 남은 마지막 개발지 마곡에 조성된 서울 최초 도시형 식물원이다. 자연에 가장 가까운 환경을 이루고, 물이 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해 생명의 종 다양성을 구현하는 것은 물론, 예술, 문화,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생태 문화적 의식과 감수성을 심어주고 있다. 문명으로부터 내몰린 자연을 다시금 도심 속으로 들여와 도시와 시민, 자연 간의 새로운 소통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지금, '서울식물원'은 도시민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있다.

자연을 통해 문화를 향유하다

서울식물원은 단순히 관광지로서의 휴양 개념이 아닌, 자연과 시민이 오래도록 교감하고 누릴 수 있는 생태 허브 공간으로서 탄생 됐다. 느리더라도 오랫동안 사랑받고 대물림되는 식물원이 되겠다는 뜻이다. 서울식물원의 조성 철학 역시 존중과 공존을 바탕으로 한다. 마곡 고유의 역사와 자원을 귀중히 대하고,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식물원에서 배출되는 자원을 재활용하고, 낙후된 문화재 및 방치된 유휴시설을 새롭게 단장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것도 전부 그런 취지에서 기획된 일이었다. 서울식물원은 자연의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고, 바르게 실천한다. 그것은 훼손이 아닌 더불어 얹혀 사는 공존으로부터 온다. 우리가 매번 소비와 저축의 균형점을 찾는 일이 힘들 듯, 자연 또한 마찬가지다. 자연을 함께 누리면서 보존하는 일이란 결코 쉽지 않다. 오랜 시간을 들여 관심을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생태 의식을 비롯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고, 생태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이해가 필요하다. 급변하는 도시의 리듬 속에서 자연을 돌보는 건 수고가 많이 드는 일이다. 그것은 단기적으로 변화될 수 없다.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혹은 생활양식을 바꾸어야 한다. 서울식물원은 자연을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도시민들의 변화를 추구한다. 문화는 자연과 도시민을 잇는 이음매 역할을 한다. 도시민들은 문화를 즐기면서 조금씩 생태 감수성을 기르고 의식을 변화시킨다. 자연에서 호흡하는 명상 수업을 듣고, 각 분야의 예술가들과 함께 하는 축제에 참여하거나 전시회를 관람하면서 자연스레 자연은 습관처럼 일상에 스며든다. 생활환경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렇게 삶은 자연과 맞물리며 서로를 보듬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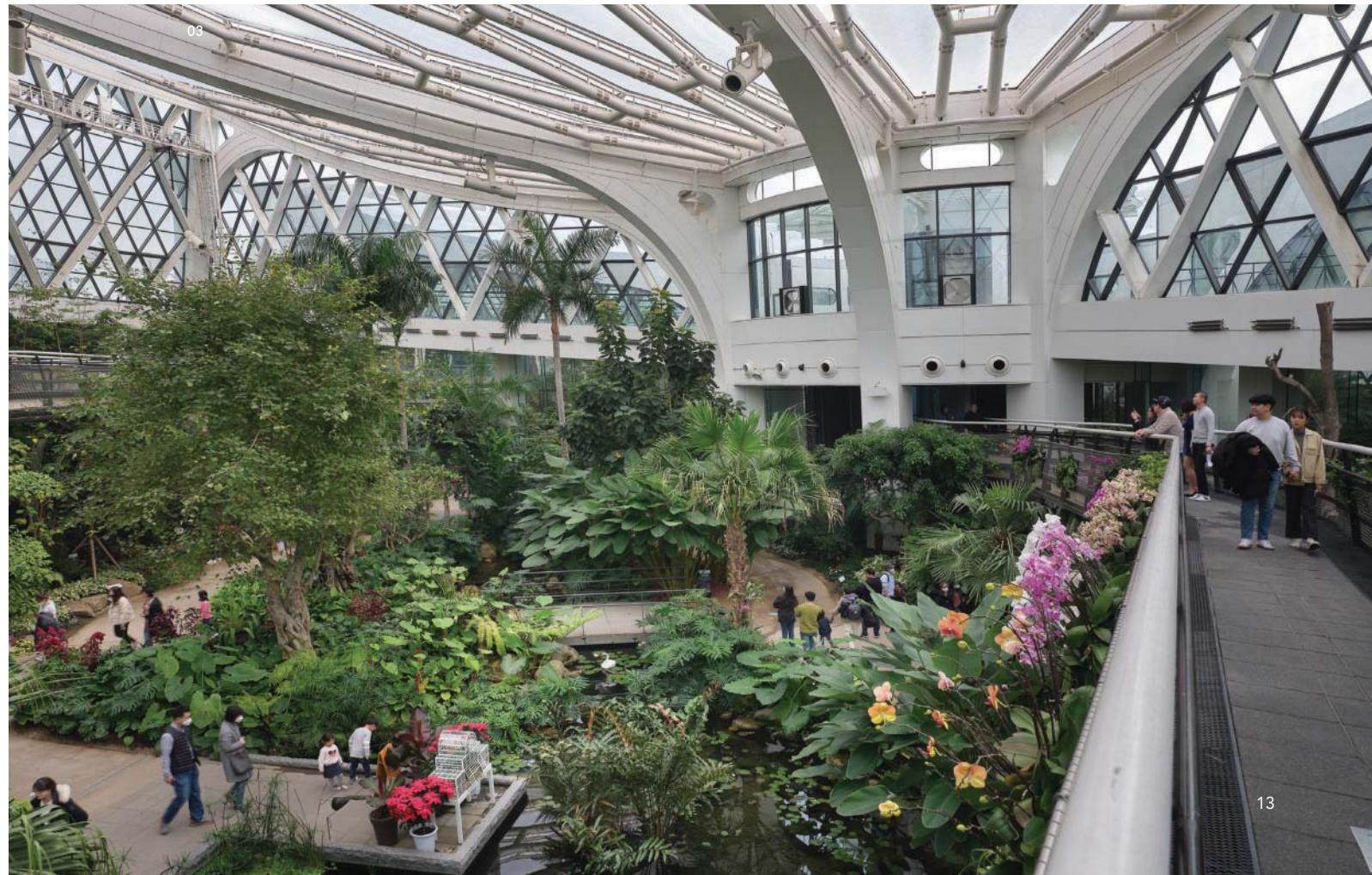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자연이 문화가 되기 위해선 도시민들이 편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서울식물원은 온실 정원이 위치한 본관을 제외하고도 열린 숲을 조성해 마음껏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무료 시설이라고는 하나 각종 편의 시설과 함께 방문자 서비스 센터를 설립해 유모차와 휠체어

등 대여 물품을 구비해 놓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쏟고 있다. 각 구획 별로 특색 있게 구성해 숲에 계절이 들 때마다 다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호수 주변으로는 습지 공원을 마련하여 도심에 서식하는 생물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교육 공간도 만들었다. 도시민들은 숲으로부터 안식과 위로, 영감을 전해 받는다. 본관에 들어서면 한국 자생식물로 재현한 전통 정원과 열대 및 지중해 12개국의 식물로 구성된 이국적인 정원 문화를 한눈에 만나볼 수 있다. 수 만 년 식물과 상생해 온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약 7천여 권에 달하는 식물전문서적이 구비된 도서관, 기획 전시관과 같은 더욱 심화된 교육 공간과 함께 카페테리아 및 놀이방 등 생애주기별, 수준별로 세분된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해 접근성을 높였다.

삶에 자연을 심다, 씨앗도서관

씨앗을 책처럼 빌릴 수 있다면 어떨까. 도서관처럼 씨앗을 대여하고 반납한다면, 도심 속 지속 가능한 순환생태계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삶을 조금은 더 푸르게 가꿀 수 있지 않을까. 씨앗도서관은 씨앗을 책처럼 빌릴 수 있는 일종의 씨앗대여소다. 앞서 말했듯, 서울식물원은 단순히 좋은 쉼터로 존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식물이 문화를 주도하고, 나아가 생활양식을 제시하는 새로운 도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자연을 통해 문화를 만들어 내고 도시민들을 끌어들이면서 삶에 자연이 깃들기를 바라는 것이다. 씨앗도서관은 자연을 누리는 걸 넘어 손수 가꾸어 나가는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획된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씨앗을 대출하는 과정은 일반적인 도서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간단한 신청 정보를 적은 후, 씨앗을 대출하면 된다. 고객의 취향에 따라, 혹은 작물을 기를 공간의 적합성과 수준을 고려해





04

씨앗을 추천해주기도 한다. 씨앗 목록은 계절 시기에 따라 주기적으로 바뀐다. 씨앗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종자를 보급할 수 있도록 국내 · 외 기관들의 협조를 요청하거나 연중 시민들의 씨앗 기증을 받기도 한다. 반납은 꼭 의무사항이 아니다. 대출한 씨앗으로 반납할 필요도 없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씨앗으로 대체하여 반납도 가능하다. 다만, 추가적인 씨앗 대출을 위해선 번식, 채종, 고사 등 기록 사진이 필요하고, 반납 실적에 따라 씨앗 종류와 수량이 변동된다.

당신을 위한 맞춤형 식물상담소

식물을 키우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매뉴얼에 따라 돌본다고 하여도, 늘 별수가 있기 마련이다. 집의 구조에 따라 일조량에 차이가 있듯이, 각자의 생활 방식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식물이 하루가 다르게 시들어간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는 없다. 대신, 정원 상담소를 찾아가 식물 클리닉을 받아보자. 활발한 정원 문화 공유를 위해 개설된 정원지원상담실은 반려 식물 건설팅 센터다. 상담사들은 식물 · 병해충 관리에서부터 기술 상담, 집의 구조에 따른 정원 설계를 조언해주고 최신 식물 트렌드를 소개하는 등 맞춤형 정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드닝 용품은 무엇이 좋은지, 참고하기 적합한 도서와 현재 진행 중인 정원 사업과 혜택을 요목조목 알려준다. 종종 어디서도 쉬이 들어볼 수 없는 상담사만의 노하우를 엿들을 수도 있다. ☺



05

04 씨앗을 책처럼 대여하고 자율적으로 반납한다.

05 연중 대여가능 씨앗은 계절에 따라 주기적으로 바뀐다.

씨앗, 어떻게 심고 길러야 할까

씨앗은 도심 생태계의 순환을 이루는 첫 단계이다. 심고, 기르고, 다시 수확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의 흐름을 몸소 체험하고, 나아가 식물이 생활이 되는 생태 문화를 실현하도록 한다.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한 시작, 씨앗 생육 방법을 소개한다.



1

씨앗은 어떻게 심나요?



심는 시기와 장소

온도, 생육기간, 수확시기를 고려해 연중 가능하고 식물 특성에 따라 야외 또는 적당한 크기의 화분(용기)에 심습니다.

심는 흙

일반적으로 물 빠짐이 좋고 수분이 유지되는 인공 용토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는 방법

심는 깊이는 씨앗 크기의 2~3배 정도가 적당하고 작은 씨앗일수록 흙을 얇게 덮습니다. 분무기나 물조리개를 이용해 흙이 파이지 않도록 물을 줍니다.

2

심은 씨앗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물관리

씨앗이 싹드는 데 가장 중요한 온도의 수분이 잘 유지되어야 하므로 흙 표면이 마르지 않도록 주기적인 물 관리가 필요합니다.

옮겨 댐기

어린 식물은 10cm 내외로 자랐을 때 뿌리가 최대한 다치지 않도록 옮겨 심고 반드시 물을 충분히 줍니다.

3

씨앗은 언제 수확하나요?



씨앗을 받는 시기는 식물의 특성과 씨앗 형태에 따라 수확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수확한 열매는 자루나 종이봉투에 담아 바람이 잘 통하고 그늘진 곳에서 충분히 건조시킵니다. 과육과 껍질은 분리하고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는 충실한 씨앗을 선별합니다.

TIP. 열매가 보통 녹색에서 갈색으로 변하거나 씨방이 살짝 벌어질 때를 전 후로 수확합니다.

4

심은 씨앗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건조된 씨앗은 습기와 벌레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밀폐용기에 담아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투명한 용기에
담아 보관



유산지 또는
종이봉투에 보관



온도 5도
상대습도 20~30%

‘하나의 세포’에서 ‘지속가능한 숲’을 보는 사람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공학연구과
김용욱 박사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국립산림과학원에는 클론보존원이 있다. 1962년부터 용재수·유실수의 수종개량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존을 위해 조성된 작은 숲이다. 김용욱 박사는 매일 그 숲을 지나며 선배들이 흘렸을 술탄 땀을 생각한다. 변변한 기술도 없던 그 시절, 클론묘 연구의 미래를 준비한 선배들의 마음을 오롯이 느낀다. ‘오래된 미래’가 자라는 숲, 선배들이 그랬듯 김용욱 박사 역시 새로운 미래를 위해 오늘도 클론묘 개발 연구에 매진한다.

글 차승진 사진 전영필

클론묘 연구개발에 매진한 30년

지난 2019년 11월, ‘국립산림과학원, 낙엽송 클론묘 생산 본격화’란 내용의 기사가 신문마다 대서특필됐다. 낙엽송은 생장이 빠르고 재질도 우수해 건축과 토목, 합판용재로 널리 이용되고 있음에도 종자 수급이 안정적이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공학연구과에서 체세포배 복제연구를 통해 일반종자의 배(胚)와 유사한 인공종자배를 대량으로 복제하는 첨단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기획의 장을 열었다. 이번 연구 개발의 중심에 있는 이가 바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공학연구과 김용욱 박사다.

“클론묘는 한 나무에서 세포가 포함되어 있는 조직을 채취해 삽목이나 조직배양 등의 방법을 통해 번식시켜 키운 나무를 말합니다. 생장이 빠르고 수형이 균일한 나무, 유전적으로 검증된 우수한 나무만 선별해 클론묘를 만들기 때문에 좋은 나무를 단기간에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현재 우리나라에는 270ha의 낙엽송 채종원이 조성되어 있지만 종자 결실의 풍·흉 주기가 5~7년이라 수급이 불규칙했습니다. 종자의 발아율도 약 40%로 낮은 편이라 더욱 어려움이 컸어요. 낙엽송은 산림청에서 차기 목재수급을 위한 주요 조림목으로 선정된 나무인 만큼 안정적인 생산·보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낙엽송 클론묘 생산 기술은 곧 낙엽송의 수급을 안정시키는 기술’이라 강조하는 김용욱 박사. 그에게 클론묘 연구는 평생을 바친 프로젝트다. 지난 1990년 산림청에 입사했을 때부터 클론묘 연구를 해왔으니 그 세월이 벌써 30년에 달한다.

Kim Yonguk

1990년 산림청에 입사한 이래 약 30년간

클론묘 개발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첫 과제인 무궁화 클론 증식 연구를 시작으로

최근엔 낙엽송 클론묘 연구를 진행했다.

앞으로도 우수한 형질을 가진 나무가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연구에 집중할 계획이다.



“제가 생물학을 전공했는데 당시 전공교수님의 권유로 산림청에 입사했습니다. 그때 처음 맡은 프로젝트가 ‘무궁화의 클론 증식에 관한 연구’였어요. 그 후엔 참나무류의 클론 증식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고, 90년대 중후반부터는 침엽수류의 클론 증식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솔잎혹파리가 기승을 부려서 소나무 피해가 막심했거든요, 그래서 솔잎혹파리와 같은 해충에 강한 소나무를 만들어 보자는 미션 아래 여러 팀이 연합해서 열심히 연구를 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후 90년대 후반부터는 낙엽송 클론묘 연구를 시작했으니, 30여 년간 ‘클론묘 연구’란 한길을 걸어온 셈이죠.”

수없는 고비를 넘기며 클론묘 연구에 매진해온 30년, 스승의 권유로 시작한 일은 천직이 되었고 20대 청년은 흰머리 희끗희끗한 베테랑이 되었다.

한 그루의 클론묘가 만들어지기까지

김용욱 박사가 몸담고 있는 산림생명공학연구과는 3개의 실로 구성되어 있다. GMO 연구를 비롯해 기능성 유전자를 탐색하는 ‘유전자공학실험실’과 무병묘 개발을 담당하는 ‘통합오믹스정보연구실’ 그리고 김용욱 박사가 속해있는 ‘클론개발연구실’이다. ‘클론개발연구실’의 업무를 설명하기 위해선 먼저 조직배양과 접목, 삽목 등 클론묘를 생산하기 위한 여러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한다. 조직배양은 살아있는 세포를 영양과 온도, 습도 등을 조절하면서 배양하는 방법이고, 접목은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내 또 다른 나무의 절단부위에 붙여 키우는 것을 말한다.

“삽목은 우리가 흔히 아는 ‘꺾꽂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가지나 뿌리, 잎 등의 일부를 잘라낸 후 다시 심어서 식물을 얻는 방식이죠. 원래 낙엽송의 번식기술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삽목이었는데,

더욱이 살아있는 나무를 대상으로 하는 클론묘 연구엔
고도의 집중력과 끈질긴 관찰력이 필요하다.



01



02



03

01 김용욱 박사는 클론묘 연구에 30년을 매진해왔다.

02 우수하고 안정적인 목재공급을 위해 다양한 클론묘 연구는 중요하다.

03 작은 세포 하나가 큰 숲을 이루고 산림의 가치를 만든다.

삽목은 나무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근율이 현저히 감소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직배양 기술을 통해 우량 개체를 번식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꾸준히 이뤄졌죠. 그 결과 현재 임업선진국에선 ‘체세포배 유도방법을 이용한 식물체 번식법’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체세포배’란 정자와 난세포의 수정으로 발생하는 자연적인 종자배와는 달리, 수정 없이 종자배의 형태와 기능이 유사한 체세포배를 인공적으로 유도하는 기술을 말한다. 김용욱 박사가 속해있는 ‘클론개발연구실’에선 배발생조직을 유도해 체세포배를 발생시키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체세포배가 발생되면 국유양묘장으로 보내는 데 이곳에선 체세포배에 알맞은 물과 영양분을 공급해 식물체로 재분화시킨다. 이를 받아 클론묘로 육성하는 건 산림환경연구소다. 한 그루의 클론묘가 만들어지기까지 클론개발연구실과 국유양묘장, 산림환경연구소는 삼각편대를 이루며 각자의 몫을 제대로 해내야 한다.

지속가능한 숲, 지속가능한 산업을 위해

세상의 모든 연구가 마찬가지겠지만, 단번에 마법처럼 이뤄지는 연구는 매우 드물다. 더욱이 살아있는 나무를 대상으로 하는 클론묘 연구엔 고도의 집중력과 끈질긴 관찰력이 필요하다. ‘클론개발연구실’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배발생조직을 유도해 체세포배를 발생시키는 것이지만, 어린 클론묘가 어떤 환경에서 더 잘 자라는지 알아보는 순화연구도 진행한다. 김용욱 박사는 ‘세포 하나, 나무 한 그루를 넘어 숲과 임업을 꿰뚫어 보는 시야’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1960년대에 우리나라는 산림녹화를 위해 미국에서 리기다소나무를

많이 들여왔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란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질은 좋지 못한 나무죠. 당시엔 임업에 대해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숲엔 잡목이 참 많습니다. 20~30년 전부터 산림청에서 잡목을 제거하고 계획조림을 시작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어요. 산림을 유지·조성하고 이를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선 안정적으로 우수한 목재를 공급하는 게 중요합니다. 클론묘 연구가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미 해외에서는 국가기관은 물론 목재회사에서도 클론묘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숲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임업을 위해서 클론묘 연구는 필수적입니다.”

30여 년간 클론묘 연구에 매진해 왔지만, 김용욱 박사는 여전히 연구실에 들어설 때마다 설렌다고 말한다. 물론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도 있다. 하지만 그 순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실망스런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연구실로 돌아가는 일이다. “실패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시도할 때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낙엽송 체세포배 복제 연구를 통해 우수한 형질의 낙엽송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다른 좋은 품종의 클론묘도 안정적으로 생산할 가능성이 커졌죠. 먼저 이 길을 걸어간 선배들이 그랬듯, 우리 역시 조금씩 앞으로 나가며 클론묘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 속에 단단한 심지를 품은 김용욱 박사. 머리엔 희끗한 서리가 내려앉았지만 그는 여전히 청년의 형형한 눈빛으로 내일을 향해 바쁜 걸음을 내딛는다. ☀

산림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

친환경 벌채

나무는 유구한 역사 동안 쓰여 온 자원이었다. 가공하기 쉬워 다양한 방면으로 고루 사용되어왔고, 인류의 생활과 문화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가는 요즘, 그 용도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토록 인류의 역사와 맞물리며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자원은 흔치 않다.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친환경 벌채는 사람과 숲이 공존하기 위한 순환 구조를 만드는 첫 걸음이다.

글 편집실

건강한 산림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벌채

해방 이후 황폐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조림사업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중 산림녹화 사업이 주된 정책 중 하나였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생장이 우수한 소나무와 낙엽송 등을 산지에 조림하기 시작했다. 현재 우리나라 인공림의 약 60%가량이 소나무와 낙엽송을 차지하는 건 바로 그 까닭이다. 그렇게 생육 된 나무는 목재 생산과 산림 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벌채를 시행해왔다. 벌채는 산림 경영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자, 임업이 이뤄지는 필수 과정이었다.

벌채는 산림 자원 관리 및 건강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 꾸준히 이어져 온 산림 운영 방식 중 하나였다. 노령화된 나무에서는 탄소 흡수량, 저장량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감소하므로 적기에 벌채하여 산림 효과를 증대시키고, 그렇게 벌채된 나무 자원을 활용하여 임업의 소득

증대와 더불어 국가 경제에 기여하도록 만들었다. 벌채를 통해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을 그려나가는 것이다. 그에 따라, 환경과 공익 목적을 위해 수많은 정책 과정을 거치면서 벌채의 방식은 꾸준히 변해왔다. 최근 들어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산림에 서식하는 생물 다양성 유지와 회복, '사람과 숲'의 조화로운 공존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벌채 개념에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친환경 벌채'다. 이전에 목재 생산을 위해 주로 행해진 벌채는 '모두베기' 방식이었다. 하지만, '모두베기' 방식은 목재 생산과 경제적 효율과는 별개로 나무 생육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산림을 일제히 벌채함으로써 일사량이 급증해 토양의 건조를 유발하여 직사광선으로 인한 묘목 생장에 문제가 됐다. 더불어, 각종 재해의 피해를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산림 환경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에 단일 수종으로 심은 조림 방식 탓에 기존의 생태계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필요했다.



벌채는 산림 경영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자, 산림 자원 관리 및 건강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 꾸준히 이어져 온 산림 운영 방식 중 하나였다.



친환경 벌채로 답을 찾다

‘친환경 벌채’는 기존의 ‘모두베기’와 다르게 급격한 환경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인 조림이 가능한 친환경적인 벌채 방식이다. 우선, 친환경 벌채는 조림지의 특성을 명확히 파악해 산림영향권을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 나무를 베어낸 곳에 생기는 부정적인 환경을 주변의 산림이 지닌 긍정적인 효과로 상쇄시키도록 나무 간의 평균 키와 거리를 고려해 벌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나무를 잔존해 놓음으로써 산림에 서식하는 생명의 생태계와 산림 경관 피해를 최소화한다. 그 덕에 벌채로 인해 열악해지기 쉬운 산림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효율적인 목재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목재 생산의 효율성 증가는 자연스레 경제적 가치 창출로 이어진다. 요즘과 같은 친환경 시대에 천연 소재인 목재 선호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 효과는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목재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산림에서 벌채를 통한 꾸준한 목재공급이 어려운 형편이다. 그에 따른 방안으로, 친환경 벌채를 실시함으로써 목재산업을 육성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산 목재 공급을 이뤄낼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친환경 벌채’는 산림 자산을 지키는 올바른 방법이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수단이기도, 나아가 사람과 산림이 서로 상생하는 노력이기도 하다. 🌱



01 벌채는 산림 경영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다.

02 친환경 벌채는 조림지의 특성을 파악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



02

..... 삶의 질을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

친환경 벌채

실생활에 밀접하게 쓰이는 목재 제품들을 통해 알아보는 친환경 벌채의 필요성!

벌채는 사람과 숲이 공존하기 위한 순환 구조를 만드는 첫걸음이자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실생활에서 쓰이는 다양한 목재 제품들을 알아보고, 벌채의 중요성을 되새겨봅시다.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 종이

인간의 편의성을 높인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인 종이는 단순한 필기도구에서 벗어나 화폐의 개념을 바꾸었으며, 인류의 문화와 일상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도구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고풍스러운 자연의 멋, 목조 건축

목재는 예부터 쓰여 온 건축 자재 중 하나였습니다. 주변 환경에 맞추어 습도를 조절하는 특징이 있고, 다른 자재에 비해 단열효과가 높습니다. 자재를 구하기 쉬운 점은 물론, 가공하기도 용이해 건축 자재나 인테리어 소재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청아하고 맑은소리, 바이올린

풍부한 감정 표현과 다양한 음색을 지닌 악기, 바이올린은 자연의 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에서 나온 음파가 나무로 제작된 동체에서 아름다운 공명을 내어 은은한 선율을 만들어내는데, 이때 나무의 질량, 성질, 수중에 따라 그 음색을 다르게 냅니다.



지금은 친환경 시대, 목재 생활용품

제로 웨이스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낭비 없는 생활을 실천하려는 사람들이 점차 늘며 목재 생활용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대나무 칫솔에서부터 나무 도마에 이르기까지, 그 쓰임도 다양합니다.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전통발효식초를 꿈꾸다

초산정 한상준 대표

‘자연이 준 기적의 물’이라 불리는 식초는 다양한 요리의 맛을 더해주는 것은 물론, 인류의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조미료다. 우리나라 역시 곡물을 바탕으로 술과 전통식초를 만들어왔지만, 일제 강점기 당시 집에서 술을 빚는 것을 금지한 주세령으로 인해 전통주가 말살되기 시작하면서 그 맥이 끊기는 비극을 겪게 된다. 이렇게 사라질 위기에 있던 전통 발효식초 제조법은 한 사람의 집념을 통해 극적으로 되살아난다. 바로 한국발효식초의 선구자, 한상준 대표를 통해서다.

글 이용국 사진 김병구

자연과 시간이 만드는 우리의 전통발효식초

한상준 대표를 만나기 위해 아침 일찍 ‘초산정(경상북도 예천군 소재)’을 찾아갔다. 입구에서부터 식초 특유의 시큼한 내음이 코를 찔렀다. 500여 개의 이르는 항아리에 담겨 1년간 발효되는 식초들이 뿜어내는 내음이었다. 식초가 저장된 숙성실 문을 열자 항아리 뚜껑을 열고 식초의 향과 맛을 음미하는 한 대표의 모습이 보였다. 아침 일찍 이곳에 나와 발효를 살피고 산미를 점검하는 것으로부터 하루를 시작한다는 한 대표에게 한국전통발효식초(이하 전통식초)를 관리하는데 특별한 기술이나 비법을 묻자 겸손히 손사래 쳤다.

“저는 단지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전통식초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은 기술이나 첨가물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재료와 시간입니다.”

이는 ‘전통식초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만드는 것이다’라고 늘 강조했던 한 대표 할머니의 말씀이기도 했다. 집에서 술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높은 세금을 매겼던 시절, 할아버지를 위해 할머니는 단속을 피하여 소의 거름 더미에 항아리를 몰래 숨겨두고 술과 식초를 만들었다. 거름 속은 일정하게 따뜻함을 유지해서 추운 겨울에도

발효가 잘됐다. 그때부터 쌓인 노하우는 한 대표의 어머니에게 전수됐고, 결국 한 대표에 의해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물론 처음부터 한 대표가 전통식초를 되살리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니었다. 8년간 직업군인으로, 제대 후에는 수년간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래머로 활동했다. 전통식초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었다.

“군 생활을 하면서 상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됐어요. 비합리적인 관행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죠. 전역하고 난 뒤 취직이 잘되지 않아 1년간은 일없이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평소에 관심이 많았고, 틈틈이 자격증을 따놓았던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취직을 하게 됐어요.”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한 업체에 취직할 당시 그는 삼십 대 초반의 나이였다. 업계에서는 ‘환갑’이라고 불릴만한 나이였다. 늦게 시작한 만큼 회사를 집 삼아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그것 역시 쉽지 않았다.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도시 생활에 서서히 지쳐갈 즈음, 그의 마음 한편에는 귀농·귀촌에 대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책을 통해 '초산균(아세트산균)'이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냥 흥미롭게 읽고 지나칠 수도 있었던 내용이지만, 한 대표는 그 점에 주목했다. 좀 더 조사해보니 당시 전통식초를 만드는 우리나라만의 방식이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거의 사라졌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된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전통식초'가 순식간에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수많은 실패를 딛고 이뤄낸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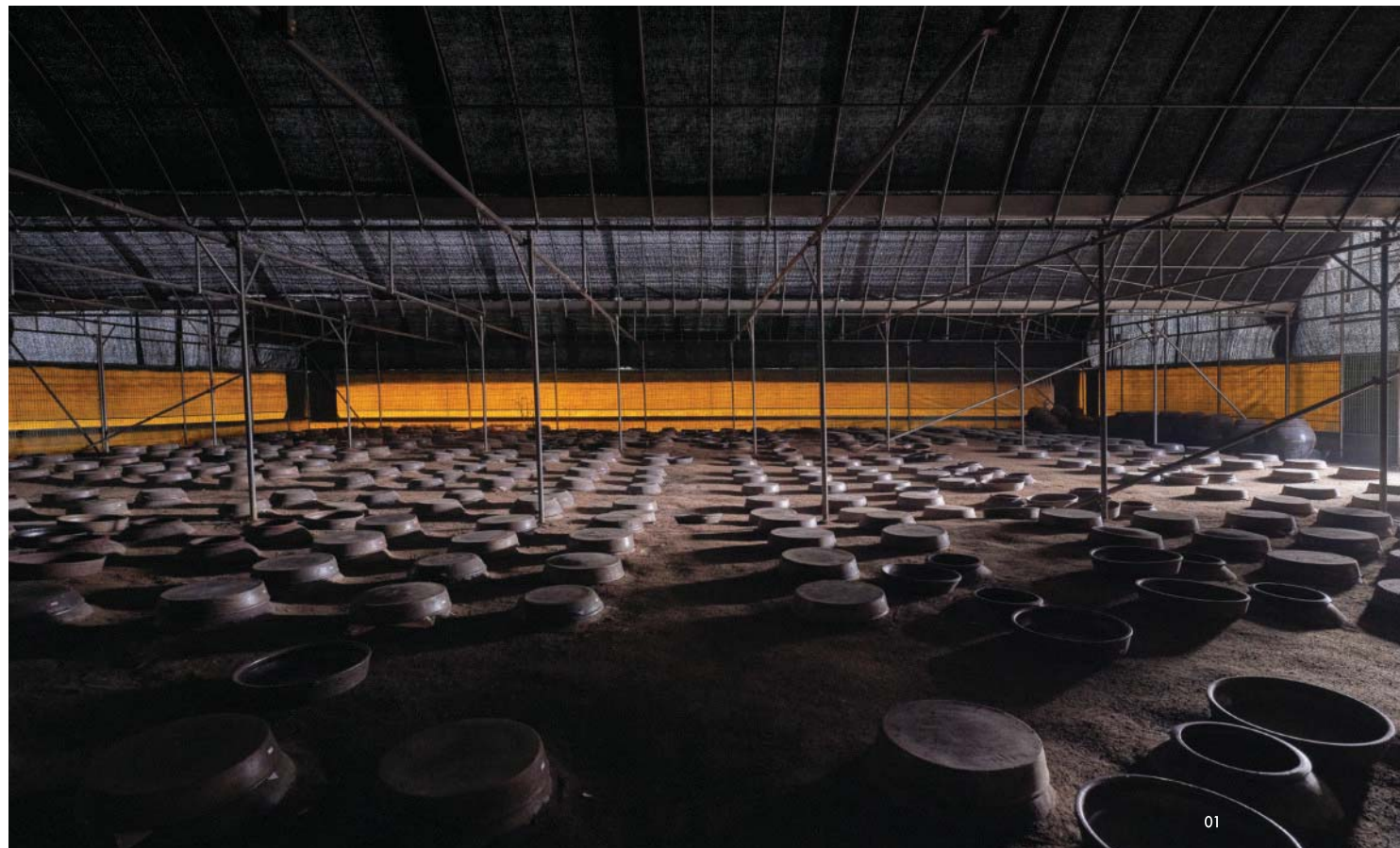
우리나라 전통 발효기술로 식초를 만들겠다고 마음먹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서두르지는 않았다. 1년 가까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개인 식초제조업자와 영농조합을 찾아다니며 기술을 습득했다. 사업 자금과 사업장을 마련하기 위해 아내 몰래 전셋집을 월세로 돌리는 모험을 감행하기도 했다. 다양한 실험을 통해 최고의 전통식초를 찾아내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그렇게 현미와 보리, 수수, 차조, 기장과 같은 오곡을 두루 섞어 발효한 '오곡미초'가 탄생했다.

"아침 차게 제가 만든 식초를 사람들에게 선보였는데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한 병을 제대로 팔지 못했죠. 절망스러웠지만, 참고 기다려준 가족을 떠올리며 무작정 밖으로 나가 식초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표는 고속도로 휴게소 가판대, 골프장이나 온천 매점 등 전통식초를 팔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갔지만, 어느 곳이든 문전박대를 당했다. 그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한 대표는 방송국을 찾아가 자신의 전통식초를 알렸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드디어 공중파 방송을 통해 한 대표의 전통식초가 소개됐다. 외롭고 긴 두드림에 드디어 세상이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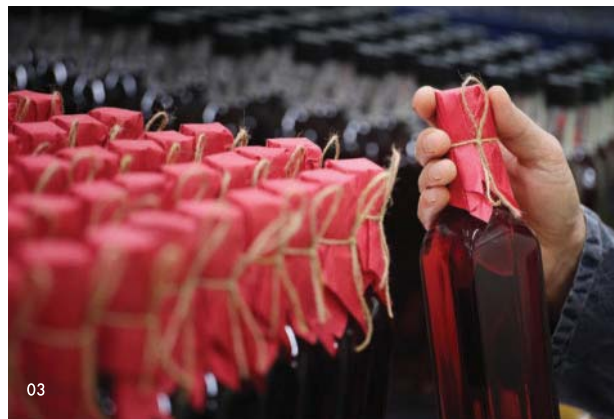
방송이 나가자 전국에 전통식초 열풍이 일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물론 유기농 코너에서 불티나게 전통식초가 판매되고, 단골도 계속 늘어나면서 매출 역시 크게 늘었다. 그즈음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과 함께 전통 곡물식초 표준규격을 처음으로 만들고,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기도 했다. 한 대표의 이러한 이야기들은 한국임업진흥원 귀농·귀촌 수기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다양한 활동으로 바쁜 와중에도 식초 문화가 발달한 일본이나 중국을



01



02



03

- 전통식초가 세계에
통하면 통할수록
그 재료가 되는
우리나라 농산물과
임산물의 위상 역시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01 한상준 대표는 각고의 노력끝에 제 1호 전통식초 명인이 되었다.

02 식초의 향과 맛을 내기 위해서 긴 발효의 과정이 필요하다.

03 해외 각국에 전통식초를 알리려 힘쓰고 있다.

오가며 발효식초 시장을 두루 살피는 것 역시 소홀히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형성된 그들의 식초 문화를 보며 한 대표는 좀 더 큰 꿈을 꾸게 된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회사를 차려서 먹고 살 만큼 성공하는 것을 넘어, 우리나라 전통식초 시장을 크게 확장한다는 꿈이었다.

국내를 넘어 세계를 향한 도전

그러한 꿈을 안고 2013년부터 시작한 '한상준 식초학교'는 7년여간 무려 9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명실상부한 전통식초 사관학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식초의 종류와 제조원리, 곡물식초와 과일식초 만들기 등 실습 위주로 구성된 식초학교는 취미로만 머물지 않고 창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 대표가 창업할 당시 거의 전무했던 전통식초 제조업체도 현재 300여 곳에 이를 정도로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 시장 규모 역시 100억대로 한 대표가 처음 시작할 당시보다 다섯 배 이상 성장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전통식초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한 대표는 전국의 식초 장인들과 힘을 모아 한국전통식초협회(농림수산식품부 사단법인)를 세웠다. 그곳의 협회장을 맡아 대한민국 '식초문화대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식초학교의 수강료도 전액 협회에 기부해오고 있다.

사업을 성공시키고 많은 제자 양성은 물론 협회 설립까지, 처음 이루고자 한 바를 모두 이뤘지만, 한 대표는 여전히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바로 우리의 전통식초를 세계에 알리는 일이다. 이미 조금씩 초산정에서 만든 식초가 세계에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호주 올해의 셰프상(2018)'을 수상한 피터 길모어(Peter Gilmore) 셰프가 초산정에 방문했다. 호주 현지인들에게 초산정 식초가 인기를 얻고 있다며 추가 수출계약을 맺기 위해 방문한 것이다. 그동안 호주에는 매월 평균 100여 병의 초산정 식초를 수출했는데, 그 수출량이 점차 늘어 2020년 1월에는 한 달 동안 600여 병의 식초를 수출하는 기업을 토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호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에 전통식초를 선보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교민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 우리의 전통식초가 통했다는 것이 고무적입니다. 전통식초가 세계에 통하면 통할수록 그 재료가 되는 우리나라 농산물과 임산물의 위상 역시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최근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을 통해 한국영화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듯이, 우리의 전통식초 역시 이탈리아의 발사믹 식초(Balsamic vinegar)를 뛰어넘는 세계 최고의 식초로 인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부를 밝히는 그의 눈빛은 그가 수십 년을 만들어 온 식초의 빛깔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상준 대표의 바람처럼, 우리나라의 전통식초가 세계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기를 함께 바라본다. 🍷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고사리와 돼지고기

먹을 것이 넘쳐나는 현대사회, 사람들은 더욱 새로운 음식을 경험하고 싶고, 특별한 음식을 찾는다. 하지만 그 호기심이 과하다 보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안전하게 별미를 즐기고 싶은 이들을 위해 향토 음식을 추천한다. 오랜 세월 동안 먹어온 식재료의 조합은 그 안전함이 세대를 이어 검증된 건강식품이자 음식이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제주도의 별미 식재료, 고사리와 돼지고기로 차린 식탁을 소개한다.

글/진행 편집실 사진 김병구 도움말 김영빈(수라재)



고사리는 양치류의 다년생 식물로 한 종의 식물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 10여 가지의 고사리종을 총칭하는 말이다. 고사리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고 많은 문화권에서 식용으로 널리 사용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린 순을 채취해 차례상에 나물로 꼭 올리며 육개장이나 비빔밥에 빠질 수 없는 필수 식재료로 사용한다. 고사리가 차례상에 오르는 이유는 매우 예의 바른 나물이기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고사리를 딸 때마다 고개를 깊이 숙여 하늘과 땅에 인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이다. 말린 고사리를 불러 본 사람들은 그 번거로움에 왜 이걸 먹었을까 생각하지만, 고사리는 영양가가 많은 임산물이다. 칼슘이 풍부하여 성장기의 어린이들이나 뼈가 약해지는 노년기에 좋으며 철분이 들어있어 빈혈기가 있거나 어린이, 여성, 임산부에게도 좋다. 섬유질이 매우 풍부해 다이어트와 변비 해소, 디톡스에도 도움을 주며 비타민 B2, C, 미네랄도 풍부해 미량의 영양소 공급에도 도움을 준다. 한방에서는 이뇨, 해열 작용에 도움을 주는 치료제와 구충제로 쓴다고 한다. 하지만 비타민 B를 분해하는 티아미나아제와 독성물질인 프타킬로사이드가 있어 과다하게 생식하면 좋지 않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성분 모두 열에 약한 수용성 물질이라 삶아서 물에 우려먹는 조리법을 이용하면 큰 탈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양치식물의 80%가 제주도에서 자란다. 고사리 역시 양치식물 중 하나로, 짙은 갈색과 붉은 몸통의 제주도 고사리가 유명하다. '먹고사리'라고도 불리며 부드럽고 질감이 좋고 향이 진한 것이 특징이다. 제주도 고사리는 빛이 잘 들지 않는 곳자왈이나 습지에서 통통한 상태로 오래 자랄 수 있어 최상의 상태로 생산되고 꽤 늦은 시기까지 채취할 수 있어 고사리를 이용한 요리가 다른 지방보다 많이 있다. 특히 고사리와 돼지고기를 궁합을 맞추어 먹어왔다. 지금도 원주민들은 고사리와 돼지고기를 함께 구워 먹으라고 별식으로 권하기도 한다.

고사리와 돼지고기는 함께 먹으면 고사리를 과도하게 먹어 부족할 수 있는 비타민B를 보충할 수 있으며 저작작용을 유도해 지방과 단백질이 많은 돼지고기를 쉽게 소화할 수 있게 도와주고 돼지고기에 없는 비타민 C 등을 섭취할 수 있다. 또한 고사리의 섬유질과 미네랄 성분이 돼지고기의 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하여 생길 수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준다.

고사리를 곁들인 베이컨 간장 파스타



Recipe 1

재료

- 파스타 면 120g
- 간장 1큰술
- 고사리 30g
- 버터 1작은술
- 베이컨 2장
- 올리브유 적당량
- 마늘 1쪽
- 소금 약간
- 청주 2큰술

레시피

- 1 고사리는 깨끗이 씻어 3cm 정도 길이로 썰고, 베이컨도 고사리와 같은 길이로 자른다. 마늘은 편으로 썰어 준비한다.
- 2 파스타 면은 소금과 올리브유를 넣은 끓는 물에 7분간 삶는다. 삶은 파스타 면은 체에 밭쳐 물기를 가볍게 뺀다.
- 3 끓는 물에 고사리를 넣고 10초 정도 데친다. 데친 고사리도 체에 밭쳐 물기를 뺀다.
- 4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마늘을 볶다가 마늘 향이 올라오면 베이컨과 고사리를 넣어 함께 볶는다.
- 5 베이컨이 노릇노릇해질 때쯤 ④에 청주와 간장, 삶은 파스타 면을 넣고, 면에 양념이 잘 배도록 볶는다. 그 다음 버터를 넣고 빠르게 다시 한 번 볶아준다.
- 6 ⑤의 파스타를 접시에 담는다. 기호에 따라 파마산 치즈를 뿌린다.

고사리 돼지고기 볶음



Recipe 2

재료

- 돼지목살 80g
- 고사리 30g
- 파프리카 10g
- 풋고추 1개
- 양파(소) 1/4개
- 식용유 적당량
- 소금 · 후추 약간
- 볶음 소스 재료
- 굴 소스 1큰술
- 간장 1작은술
- 설탕 1/2작은술
- 감자전분 1/4작은술
- 마늘 1쪽
- 참기름 · 다진 파 약간

레시피







- 1 돼지고기 목살은 채 썰고, 소금과 후추로 밑간한다.
- 2 파프리카, 풋고추, 양파도 각각 채 썰고, 고사리는 먹기 좋은 크기로 한두 번 자른다.
- 3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②의 손질한 야채와 고사리를 넣고 낮은 온도에서 볶는다. 다 볶은 야채는 접시에 담는다.
- 4 야채를 볶은 팬에 ①의 돼지고기를 넣고 볶는다. 고기가 다 익으면 불을 끈 뒤, 볶은 야채 접시에 함께 담는다.
- 5 고기를 볶은 팬에 참기름, 마늘, 다진 파를 넣고 볶는다. 향이 올라오면 볶음 소스 재료를 모두 넣은 다음, 끓기 시작했을 때 볶은 야채와 고기를 함께 넣고 소스와 잘 버무린다.

건조한 겨울 실내 습도를 높이다

아레카야자

아레카야자는 미우주항공국(NASA)에서 밀폐된 우주선 안의 공기를 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공기정화식물 50가지 중에서 최종 1위를 수상한 식물이다. 공기 정화 및 실내 습도를 높이는데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는 아레카야자는 요즘 같이 공기는 건조하고, 실내 먼지는 쌓여만 가는 겨울철, 거실에 두기에 매우 적합하다. 야자류 중에서도 부드러운 질감과 온화한 느낌을 주며, 가습기를 대신할 정도로 증산량이 뛰어난 아레카야자. 올 건조한 겨울, 아레카야자와 함께 부족한 실내 습도를 보충하자.

글 권용민

-  **번식** 파종
-  **물주기** 토양 표면이 말랐을때 충분히 관수함
-  **학명** Chrysalidocarpus lutescens
-  **꽃말** 부활, 승리
-  **크기** 높이 3~8m
-  **과명** 야자과



아레카야자는 실내 식물 중에서도 잎이 많은 편에 속한다. 키우기는 그리 어렵지 않으나, 초보자들의 경우 잦은 실수를 범하는 식물이기도 하다. 아레카야자의 특성을 알지 못해 벌어지는 일이다. 앞서 말했듯, 아레카야자는 잎의 수가 많다. 그 뜻은 시들고 새로 나는 잎들 역시 많다는 얘기다. 짐승이 털갈이를 하듯, 식물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초보자들은 노랗게 변색되는 과정을 마치 수분이 부족해 메말라가는 현상으로 인식하여 과다하게 물을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번 기회에 아레카야자의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건조한 실내 습도를 높여보자. 첫 번째, 아레카야자를 키우는 데에 있어 중요한 점은 바로 빛이다. 잎이 길게 뻗은 아레카야자는 중간 이상의 광도(800~10,000 Lux)를 쬐어주어야 잘 자란다. 별이 잘 드는 남향 측 거실이나 발코니 내측에 두는 것이 좋다. 만약, 광도가 너무 높을 시에는 얇은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광도를 조절해주어야 한다. 너무 거센 빛에는 잎 끝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가 원산지인 아레카야자는 습한 환경(습도 40~70%)을 유지시켜주어야 한다. 아무리 실내 습도를 높여주는 식물이라고는 하나, 실내 공기가 과도하게 건조할 시 잎 끝이 갈라지거나 변색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세 번째, 아레카야자는 특성상

자연스런 변색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발생한다. 그러나, 초보자들은 자연적인 변색과 손상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잎의 증상마다 해결법을 알아두는 게 좋다.

잎이 노랗게 물든다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증상이다. 줄기부터 이어지는 안쪽 면부터 변색이 시작될 경우 물의 양을 조절하거나, 물을 크게 듬뿍 주어 해결할 수 있다. 물을 과다하게 섭취할 시에도 비슷한 증상을 보이므로, 그럴 때는 잎 면을 만져 촉감으로 판단해보는 것이 좋다. 충분한 수분을 머금고 있을 경우 물 양을 줄이는 것이 좋다.

잎에 노랗게 반점이 뜬다면, 흙의 영양분을 의심해볼만 하다. 영양 불균형에 신체 리듬이 망가지는 것처럼, 흙의 영양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경우, 비료를 주어 영양 균형을 맞춰주어야 한다. 특히 칼륨이 부족할 시 줄기가 약하고, 잎의 변색이 시작되는데, 예방 차원에서 2년 주기로 신선한 흙을 보충해주어야 한다.

가장 아래쪽의 잎의 연한 고동빛으로 변하는 경우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잎의 수명이 다 했다는 뜻이다. 종종 흙의 영양 불균형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므로 평소 분갈이 주기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주고, 잎과 흙을 만져보아 수분에는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판단해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주의 사항을 알아두고, 실천한다면 올 겨울 수분 걱정을 한결 덜 수 있을 것이다. ☺

귀산촌 정착을 위한 첫걸음

산촌의 삶이란 무엇일까?

가까스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는데, 퇴직 연령은 벌써 다가오고, 자식들은 무섭게 커가고
어쩌면 좋을까. 삶의 고비마다 문득 드는 생각, 도심을 벗어나고 싶다. 각박한 도시 생활에
지친 이들에게 숲은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적한 숲에서 생계를 해결하고,
평화로운 노후까지. 계절의 주기에 따라 일구고 거두며, 자연의 리듬에 맞추어 사는 산촌 라이프.
지금, 산촌에서의 건강한 삶을 계획해보자.

글 편집실

산자락 아래 다뭇하게 자리한 마을, 주민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계절마다 수확한 작물을 나눠 베풀며 소소한 일상을 누린다. 어느 누구도 쫓기듯 각박하게 살지 않는다. 숲은 부추기지 않고, 절기에 맞게 기다리는 법을 알려준다. 사람들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자신만의 속도를 갖고 살아간다. 모두가 꿈꾸는 산촌의 삶이란 바로 이런 모습일 것이다.

하지만, 행복한 산촌의 삶은 단순히 주거지만을 옮긴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철저한 계획과 조사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거주 환경 및 경제적 여건과 상황, 마음가짐 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귀산 계획을 수립해야만 성공적인 산촌 정착이 가능하다. 막연히 산촌 생활을 꿈꾸는 이들에게 현실적인 조언과 유념해야 할 문제들을 차근차근 소개해 본다.

산촌의 삶을 바르게 정의하다

산촌의 삶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한 번쯤 귀산촌을 소망해본 이들이라면, 스스로 되뇌어야 할 질문이다. 경제적인 삶을 뒤로하고,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찾아오는 이들이 많아진 만큼, 산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귀산촌을 하기 위한 역량을 기르지 못했거나 혹은 산촌의 삶이 예상했던 바와 달라

괴리를 느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산촌의 삶을 시작하기에 앞서 '산촌의 삶이란 무엇인가.' 정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산촌의 삶은 단순히 산촌으로 이주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산촌이라고 하여 모든 생활을 자급자족해 이루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여유나 삶의 한가로움이 절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도심에서 행하는 노력만큼, 산촌에서도 그에 맞는 의지가 필요하다. 행동방식, 생활방식, 더불어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 우선 도시와 산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생각해보자. 바로 환경이다. 도시는 집 밖을 나서면 아스팔트 도로와 잿빛 콘크리트 건물, 세련된 카페와 편리한 교통편이 있는 반면, 산촌에는 드넓은 산림이 있고, 논과 밭이 펼쳐져 있으나 각종 편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재하고 늦은 오후만 되어도 마을 전체에 어스름과 함께 침묵이 내려앉는다. 조용하고 한가롭다.

환경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교류 및 현지 문화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이웃 간의 소통이 점차 소홀해지는 도심에서는 자연스레 관계가 험소해진다. 내 가족 혹은 나와 관련된 사람들과 소통하며 관계를 맺는다. 하지만 산촌에서는 마을 단위를 기반으로 교류한다. 일종의 공동체다. 이러한 공동체는 마을의 방향성에 따른 규율이 있고,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때문에, 무작정 이주를 택한 이들은 마찰을 겪는 경우도 허다하다. 산촌의 특성이나 문화를 미처 몰라 벌어지는 일들이다. 산촌마다

•
도심에서 행하는
노력만큼, 산촌에서도
그에 맞는
의지가 필요하다.

행동방식, 생활방식,
더불어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

자리 잡은 문화적 특이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받아들이 준비를 하지 않으면, 도심에서의 생활보다 더 큰 불편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사람은 환경의 산물이다. 동물이 주변의 환경에 적응하고, 주어진 삶을 따르며 살아가듯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 환경은 지리나 기후와 같은 물리적 조건일 수도 있고, 문화와 관습 같은 비가시적인 특성일 수도 있다. 무엇이든 사람은 환경에 맞추어 삶의 모양새를 다듬어 나간다. '도시'라는 표준적인 생활양식이 일반화된 요즘, 산촌에서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 차이를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기에, 귀산촌 과정은 도시와 산촌 간 삶의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해 가는 노력의 과정이기도하다.

인생 2막, 새로운 도전을 위한 준비

도심에서 산촌의 삶을 체험해 볼 수는 없을까. 당장 시골로 내려가지 않더라도, 지금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친환경적인 삶을 몸소 실천해봄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볼 수 있다. 마당이나 베란다에 작은 텃밭 혹은 화단을 꾸려 자연을 일구어 본다든가, 자연 친화적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한 이웃 간의 교류 활동을 실행해봄으로써 어렴풋이나마 짐작해 보는 것이다. 혹은, 우리가 겪어온 도시적 삶의 습관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질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

01 산촌마다 각자의 규율과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02 성공적인 산촌 정착을 위해서는 산촌의 환경 및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성공적인 산촌 정착을 위한 맞춤 가이드

'산촌에 살다' 코너에서는 산촌정착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수 사항들은 순차적으로 소개합니다. 귀산촌 계획을 실행하기에 앞서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완벽한 산촌 라이프를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귀산촌 정착을 위한 첫걸음, 산촌의 삶이란 무엇일까

산촌의 삶을 바르게 정의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보자

각 산촌의 특성과 환경은 어떻게 다를까

법규에 규정된 산촌의 의미와 우수산촌 마을의 환경적 특성 및 특산물은 무엇일까

삶의 터전으로서의 산, 내가 살아야 할 땅

풍수지리 및 재배 작물에 따른 토지 선정 노하우

산촌 생활 정부 지원정책의 모든 것

산림청이 지원하는 단계별 맞춤 정착 지원 및 경영 혜택

내게 맞는 소득 작목은 무엇일까

적성, 기술 수준, 자본력, 품목별 출하 지역, 적지 등을 고려한 작목 선택 방법

나만의 색다른 산촌 생활

각자의 소질은 살리고, 재능은 나누는 나만의 색다른 산촌 생활

다소곳이 쌓인 눈의 고장

강원도 인제, 곰배령

눈 자락이 한껏 산을 뒤덮고 있었다. 사방으로 하얀 눈밭이 연이어 펼쳐졌다. 눈을 가득 머금은 곰배령은 빛을 고루 내뿜으며 제 존재를 드러냈다. 천상의 화원이라 불리는 곰배령이지만, 겨울 동안 만큼은 눈의 고장이라 일컬어도 손색이 없었다. 부드럽게 얹힌 고개마다 하얗게 눈이 얹혀 마치 안개에 둘러싸여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바람이 불고, 해가 기울 때 마다 곰배령의 산세가 겨우 그 모습을 드러냈다.

글 권용민



점봉산 정상에서 남동향 곰배령을 중심으로 희귀 야생화 및 산채류 등이 다량으로 분포되어 있어 1987년 보호림으로 지정된 후 입산 관리를 하고 있다. 때문에, 곰배령에 입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약을 해야만 한다. 입산 시간 역시 계절별로 통제를 해 고지된 시간 이후에는 곰배령을 탐방할 수 없고, 각 코스 구간마다 통과 시간이 정해져 있어 유의해야 한다. 12시 이전까지 강선마을 중간 초소에 도착해야만 이후 곰배령에 오를 수 있고, 곰배령에 도달하여도 오후 두 시에는 꼭 하산해야 한다.

눈이 안개처럼 쌓이다

눈이 명물임을 자랑하기라도 하듯, 곰배령에 들어서는 입구부터 가득 쌓여있었다. 걸음을 이을 때마다 눈이 발목을 지긋이 움켜쥐었다. 걷는 데 힘이 들 정도였다. 신발에 덧대어 착용한 아이젠이 걸음마다 눈속을 파고들었다. 곰배령은 예로부터 눈이 많기로 소문이 자자했다. 영동산간에 큰 눈이 내리기라도 하면, 처마 끝이 달을 정도로 눈이 쌓인 적도 있었다. 곰배령 끝 어귀에 자리한 마을 이름 역시 '설피'였다는 점을 그제야 깨달았다. 설피란 나무의 줄기나 덩굴을 엮어 눈이 많은 고장의 주민들이 겨울철 신바닥에 덧대어 신는 도구를 말하는데, 그만큼 눈이 쌓인다는 것을 뜻했다.

몇 걸음 걷다 물소리가 들려 고개를 틀어보니 계곡물이 알개 흐르는 소리였다. 겨우내 잠들어 있던 계곡이 기지개를 켜듯 가볍게 흘러내렸다. 이끼가 낀 바위틈으로 가늘게 물줄기를 쏟아냈다. 싹을 틔우려는지 물가 주변으로는 드물게 초록빛이 돌았다. 곰배령에선 벌써부터



01 겨우내 잠들어 있던 계곡물이 알개 흐르기 시작한다.

02 경사가 완만해 초보자들도 쉽게 등반 가능하다.

03 오후 두 시가 되면 관리자가 통제하여 하산해야 한다.



● 눈이 명물임을 자랑하기라도 하듯, 곰배령에 들어서는 입구부터 가득 쌓여있었다.

걸음을 이을 때마다 눈이 발목을 지긋이 움켜쥐었다.



봄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렇게 언 몸을 움직이고, 힘껏 땅에 기운을 실어 계절을 갈아입을 준비를 했다. 아직 만연한 겨울이었지만 이른 봄, 들꽃이 허다하게 핀 곰배령이 얼핏 머릿속에 그려졌다.

곰배령 품에 안긴, 강선마을

한 시간 정도를 여유 있게 걷다보면 강선마을에 도착한다. 대략 10여 가구가 어깨를 맞대고 삶의 온기를 피우고 있다. 눈이라도 한번 거세게 내리면 고립되는 깊은 산골이지만, 먹을 만큼의 식량을 일구고, 나누면서 자연의 속도에 맞추어 여유를 갖고 살아간다.

강선마을은 본래 화전민 마을이었다. 강선리라는 별도의 행정조직이 갖추어져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컸다. 세월이 흐르며, 하나 둘 각자의 삶을 찾아 곰배령을 떠나면서 마을의 규모는 점차 작아졌고, 지금에 와서는 작은 오지 마을이 되었다. 현재 마을 사람들은 곰배령 등산객들을 통제 및 관리하거나, 산림 보호에 앞장서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주변을 한적하게 둘러보고 지나가려는데, 마침 마을 주민 한 분이 바람을 쐬러 나오셨다. 눈이 많이 와서 관찮으냐고 물었더니, 이쯤은 아무 문제가 없단다. 지난번 겨울에는 눈이 허벅지 부근까지 쌓였었다고, 요새는 눈 구경도 제대로 하지 못해 아쉽다는 듯 말하신다. 눈이 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산 속에서 사람들은 눈을 보는 낙으로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 눈을 바라보는 일만으로도 마음이 더없이 너그러워졌다.

곰배령, 천상의 설원이 되다

강선마을 초소에 진입해 아이젠 착용 및 시간을 점검한 후 다시 산에 올랐다. 강선마을을 지나면서 오솔길로 접어들었고, 제법 경사가 지기 시작했다. 산세가 높아질수록 서늘한 바람이 몸을 훑고 지나갔다. 다리를 삼키듯 폭폭 빠지기를 반복했고, 가파른 경사에 낙폭이 커진 계곡물 소리는 거세게 들려왔다. 나는 곰배령을 온몸으로 통과하는 기분이 들었다.

마침내 정상에 오르고 나서야 곰배령이라는 말을 비로소 실감했다. 눈이 내려앉은 드넓은 지대 위로 곰이 하늘을 향해 누운 양 산등이가 볼록하게 솟아 있었다. 그 주위로 백두대간의 등뼈를 타고 약 5만평에 달하는 설원이 까마득히 펼쳐졌다.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광경이었다. 오랫동안 곰배령 어귀를 눈으로 쓰다듬었다. 탁 트인 전망 사이로 작은 점봉산과 큰 점봉산, 대청봉이 굴곡을 타고 이어졌다. 부드럽되 곧은 자세로 친근하되 기품 있는 태도로 서 있었다. 그 풍경을 감상하는데, 문득 마음이 부풀면서 왠지 모를 감동이 밀려왔다. 그저 눈으로 경치를 바라볼 뿐인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처럼 마음 한 구석이 얼얼했다. 어느덧 시간은 두시를 넘어섰고, 아쉬움을 뒤로한 채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곰배령은 너그러웠다. 이리오라 다그치지 않고, 가만히 등산객들을 품에 안았다. 그 덕인지 마을 사람들은 마주칠 때마다 안부를 물을 정도로 따뜻했다. 비록, 짙은 녹음을 뽐내지는 못했으나 눈이 서린 곰배령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귀한 풍경이었다. ☁



이름으로 만나는
나무 이야기,

우리 나무 이름 사전

나무에는 각자의 이름이 있다. 나라마다 혹은 지역에 따라 불리는 이름도 갖가지다.
마치 사람의 별명처럼 말이다. 이름을 붙이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나무마다
지역민의 문화와 감성이 자연스레 깃들여 있다. 때문에, 나무의 이름을 묻는 일은
어쩌면 한 시대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방법이자 당대의 정서를 느끼는 일인지도 모른다.

글 편집실



저자 박상진
일러스트 식물화가 한수정

●
우리는 이름을
부름으로써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한 사람을 이해하며,
그 사람을 둘러싼 세계와
대면한다.

나무의 이름 역시
마찬가지다.

01 저자는 나무 이름을 통해 한 시대의 문화와 정서를 들여다본다.
02 간단한 이름의 유래와 함께 관련 삽화가 곁들어 있다.

나무의 이름으로 시대를 읽다

사람과 사람이 처음 만나면 이름을 주고받는다. 상대를 부르기 위해, 또는 나를 알리기 위해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이름은 한 사람을 알아가기 위한 첫 번째 단서이자 유일하게 변치 않는 객관적인 증거다. 우리는 이름을 부름으로써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한 사람을 이해하며, 그 사람을 둘러싼 세계와 대면한다. 나무의 이름 역시 마찬가지다. 저자는 나무의 이름을 통해, 그 나무에 새겨진 한 시대의 문화와 정서를 읽어낸다. 이름이 붙여진 경위를 파헤치며, 나무의 생김새를 재발견한다거나 그 특징을 다시금 살펴본다. 예를 들자면, 순우리말 이름의 나무는 주로 백성들이 붙였는데 그래서 직관적이고 꾸밈없는 이름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저자는 층층나무의 유래를 가지가 매년 층층이 돌려 자라는 형상에서 비롯되었다고 짐작하거나 뽕나무는 소화가 잘 되는 열매 오디를 먹으면 ‘뽕뽕’ 방귀가 잘 나왔기 때문이라는 익살스러운 추측을 하기도 한다. 듣다 보면, 마냥 틀린 이야기도 아니다. 끝끝이 나뉘어 있어 ‘나누다’라는 말이 변형돼 난티나무라 일컫는 다거나 가지 속에 목질은 얼마 없고 푸석푸석 갈라지는 모습이 마치 국수 같아 국수나무라 불렀듯, 충분히 일리가 있다.



식물항명집》이 발간된 이후부터다. 그 전에는 마을마다 식물 명칭이 다르게 변했다. 점차 대대적인 식물 명칭의 정비 작업이 이루어졌고, 지방마다 다르게 부르는 이름 중 합리적이고 널리 쓰이는 이름을 선정해 표준명으로 삼았다. 이후 여러 과정을 거듭 거쳐 오며 지금에서는 거의 통일된 일반명을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나무의 이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종종 비슷한 어휘가 발견되곤 한다. 나도밤나무와 너도밤나무, 혹은 눈촉백이나 눈향나무처럼 공통된 접두어를 사용하는 나무들이 흔하다. 무슨 차이일까. 막연히 짐작해 보지만, 정확한 뜻을 알아맞히기란 쉽지 않다. 접두어마다 그 쓰임이 다른 탓이다. 서식지나 모양, 열매 등, 나무를 이루는 여러 요건 중 한 가지 특징을 부각시켜 접두어를 붙인다. 가지가 굵은 모양을 이뤘다면, ‘굵-’을 붙이고, 땅에 붙어서 생장하는 나무들은 ‘눈-’이라는 접두어를 둔다. 사람의 이름에 삶의 소망이 담겨있다면, 나무의 이름에는 삶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다.

분단의 역사에 깃든 이름

나무에 깃든 역사는 우리 한반도에도 서려 있다. 1948년 남과 북이 갈라지고 70년에 다다른 지금, 점차 언어적인 이질감이 커지고 있다. 언어의 차이는 나무의 이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북한의 나무 이름은 전반적으로 순우리말의 의미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외래어를 순화해 쓴다던가, 비속어는 배제하는 등 언어의 고유성을 지키는 데에 중점을 둔다. 그래서, 순우리말을 기반으로 지어진 나무의 이름 같은 경우는 남과 북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와는 다르게 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른 형태를 띠는 이름들도 적지 않다. 그 격차는 수입해온 나라의 언어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의 차이에서 벌어진다. 북한의 경우는 앞서 말했듯 순우리말로 나타내는 데에 상당한 노력을 들이는데, 특히 국가 이름이 들어간 이름의 경우는 그 명칭을 아예 제외해버렸다. 하여, 북한에서는 일본매자나무는 좀매자나무, 일본목련은 확목련으로, 중국굴피나무는 풍양나무, 중국단풍은 애기단풍으로 고쳐 부르고 있다.

언어적 특이성은 특히 ‘두음법칙’에서 두드러진다. 북한에서는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아, 나한송을 라한송으로, 육지꽃버들은 룡지꽃버들이라고 쓴다. 이 외에도 나무 이름에 따른 언어적 차이는 여러 방면에서 고루 스며있다.

이렇듯 나무에는 한 사람의 재치와 정서, 혹은 품위가 어려 있거나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하기도, 혹은 한 국가의 가슴 아픈 역사적 발자취를 고이 간직하고 있기도 하다. 숲은 우리와 함께 공생하며 여러 삶의 단면들을 고이 담아두었다. 🌳



산불로부터 산림과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산불위험예보시스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약 63%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을 만큼 산림은 많은 범위를 차지한다. 산림의 지형은 지역마다 다르고, 조림된 수종 별 특성도 천차만별이다. 때문에, 산불진화를 위해서는 숲의 지형적·임상적 특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홍수나 산사태 등 추가 피해에 대비해 신속한 대처 능력을 갖춘 전문진화대가 필요하다. 물론, 체계적인 산불진화 시스템을 구축해 초기에 진화하는 것이 좋다. 이번 함께하는 산림에서는 험난한 환경과 고된 현장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산림청의 노력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글 편집실

줄어들지 않는 산불, 산불 원인도 다양화

산림청「2020년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봄철 평균 기온은 평년(4.6℃)과 비슷하고 강수량 또한 평년(198.7mm)과 비등하게 예측되나 3~4월 강풍의 영향으로 산불 위험이 상존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의 영향과 산림내 낙엽 등 연소물질의 증가로 인한 대형산불의 위험성과 전력설비 및 DMZ 산불 등 새로운 유형의 산불이 대두될 전망이며, 입산자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는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귀산촌 및 펜션단지의 증가로 산불 잠재력 역시 높은 수준이다. 그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산불방지를 위한 효과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수립해 산불 발생 및 피해 최소화해 힘쓰고 있다.

산불을 신속 정확하게 진단한다. 산불위험예보시스템

봄철이면 떠오르는 포스터가 있다. 강렬한 색채와 특징적인 표어, 곳곳에 불씨가 그려진 그림. 바로 산불 예방 포스터다. '산을 타러 가십니까? 산을 태우러 가십니까?' 등 해마다 특색 있는 문구와 함께 산불의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갖도록 한다. 산불은 진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근원적인 산불 위험을 없애는 것이다. 산불위험예보시스템은 바로 실시간으로 산불 상황을 발 빠르게 파악해 초기에 대응하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01 산불 진화에는 산림 지형 및 기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아찔한 위기의 상황을

고루 겪으면서도,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오로지 숲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오늘도 고군분투한다.



산불위험예보시스템은 1991년 이후 발생한 산불 만여 건의 정보를 분석해서 만든 시스템이다. 산불의 발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온과 습도, 풍속 등 기상요소를 고려해 종합적인 산불 위험을 예측한다. 전국 읍, 면, 동까지 세분화하여 산불이 날 가능성을 미리 파악해 산불 위험도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단계별로 예보한다.

최근에는 산불 예측과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기상 빅데이터를 활용해 동아시아 몬순, 엘니뇨 등 대규모 기후시스템과 한반도 산불위험예측 기술개발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 각종 정보를 종합해 조기 예측 능력을 향상하겠다는 뜻이다. 올해부터는 산불 발생 인자와 기후 패턴 등 기상 빅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산불위험예보 장기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월간 산불 전망을 시범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목숨을 걸고 산불을 진압하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예방에 주의를 기울인다 해도, 늘 완벽할 수는 없다. 삶의 우연이 모두 그렇듯, 산불 역시 순간의 방심으로 큰 불길일 일으키는 법이니까. 그래서, 예방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산불을 진화하는 일이다. 산림청에서는 산불진화에 특화된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운영하여 산불 초기진화에 앞장서고 있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선발 기준 역시 까다롭다. 험악한 산악 지형을 무거운 장비를 갖추고 이동해야 하는 등 체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선발은 서류심사와 체력 검정으로 이루어진다. 체력 시험에는 총 다섯 가지 종목을 평가하는데, 팔굽혀펴기 · 윗몸일으키기 · 100m 달리기 · 1000m 달리기 · 모래주머니 나르기(20kg, 50m) 중 한 종목이라도 일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탈락한다. 산림청에서는 기후 및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산불의 위험성을 인지하여 산불 전문 인력확충과 처우 개선에 힘쓸 전망이다. 19년도 300여 명에서 435명으로 인력을 확대하고, 연차별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등 지상진화 대응 능력을 제고시키고, 산불진화훈련장을 설립 · 운영하여 역량 강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산불은 99%가 인재로서 대부분 사람의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한다. 등산 시 라이터, 휴대용 버너 사용이나, 봄철 대기가 건조할 때 논 · 밭두렁 태우기, 산림 근처에서 쓰레기 소각 등 작은 실수와 방심에서 비롯된다. 그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줄 하나에 의지해 목숨을 걸고 현장에 뛰어든다. 험준한 지형 탓에 아찔한 위기의 상황을 고루 겪으면서도,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오로지 숲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오늘도 고군분투한다.

02 우리나라 산불의 대부분은 사람의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한다.

03 산림청에서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운영하여 초기 진화에 앞장서고 있다.

산림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산불을 예방하는 일은 산림의 가치를 지키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예방은 거창한 정책이나 기술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작은 습관에서부터 이루어진다. 우리가 숲을 위해 실천해야 하는 일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지 않는 등 산불예방을 위한 습관을 지켜나가는 일이다. 어렵지 않은 사소한 일이지만, 쉬이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 부주의한 몇 초가 산림의 몇십 년을 앗아간다.

아이는 부모의 얼굴이라는 말처럼, 숲은 우리의 또 다른 얼굴이자 모습이다. 우리가 들이는 수고만큼 정직하게 내어주고, 쏟는 정성만큼 자란다. 숲을 대하는 태도는 자연을 생각하는 선의에서부터 온다. 숲을 이루는 산림 생태계에 관심을 갖고, 몸소 행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숲은 점차 무성하고 삶은 더욱 너그러워질 것이다.

| 산불 예방을 위한 습관 7가지 |

1 산행 전 관할 시 · 군 ·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부서에 문의해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는 산행을 하지 않는다.

2 등산을 할 때에는 라이터, 휴대용 버너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는다.

3 야외에서 취사를 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고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 불씨 단속을 철저히 한다.

4 입산통제구역에는 출입하지 말고 산림 내에서는 절대 흡연하지 않는다.

5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는 논 · 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을 하지 않는다.

6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는다.

7 산불발생 원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경찰 혹은 산림관서 등에 신고한다.

산림청 소식



산림청, 임업인과 함께하는 2020년 ‘숲 속 사무식’ 개최

산림청은 2020년 1월 3일 새해를 맞아 임업인과 함께하는 현장 사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박종호 산림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임업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형식보다는 실리를 우선하는 산림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산림청의 공직자 모두 임업인 및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람중심의 산림정책 혁신을 가속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 화성시 미세먼지 차단 도시숲 사업지 현장 점검

산림청은 1월 11일 경기 화성시 동탄 방교동 873-2 일원 일반산업단지를 찾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산림청은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 바람길숲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지체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임을 드러냈다.



산림청, 국무조정실 발표 규제혁신 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

산림청은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19년 정부 업무평가’ 결과 7년 연속 규제혁신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산림청 최병암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 불편 규제,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애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숲이 주는 즐거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누리세요!

산림청은 ‘2020년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2019년 12월 30일 공표)에 따라 오는 2월 3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월 21일 밝혔다. 지난해 5월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 개선 요구를 반영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도개선 방안’을 금년도에 새롭게 적용한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앞으로도 공정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시설과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포용적인 산림복지 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접목시킨 달라진 산불대응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따라 산불발생 원인별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0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불 발생의 64%를 차지하는 봄철, 취약지를 중심으로 한시적 입산 통제를 강화하고, 사각지대는 드론, 감시카메라 등 첨단 ICT 장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불은 대부분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국민들께서도 산림내 인화물질 휴대나 산림인접지 소각을 자제하여 산불방지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림청장 에티오피아 대통령 예방하여 P4G 파트너십 사업 논의

산림청은 에티오피아 서남부 지역에서 황폐해진 산림 에코 시스템을 복원하면서 그 일부를 친환경 커피 농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산림청장은 “이번에 에티오피아에서 시행되는 산림복원 및 커피 혼농 임업 모델은 에티오피아만이 아닌 콜롬비아, 베트남, 케냐, 인도네시아 등의 다른 P4G 회원국들에게도 시사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0년 산림청 업무계획 발표

박종호 산림청장은 올 한해 ‘함께 발전하는 임업, 국민의 삶을 지키고 포용하는 산림’을 만들기 위해 상생번영의 산림관리 체계 마련,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임산업의 활력 제고, 산림 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안전한 산림, 건강한 산림생태계 구축, 누구나 체감하는 산림복지 포용성 강화 등 5개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산림청, 세계은행과 글로벌 산림협력 첫 단추 끼우다

산림청 최병암 차장은 미국 워싱턴 DC 세계은행 본부에서 세계은행(World Bank)과 ‘공동 산림 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측은 개발도상국의 산림복원, 공동체림(Community Forestry) 보전 및 지역 주민 자립 지원, 생태관광, 경관 복원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올해 서울 남산 면적의 77배만큼 나무를 심는다

산림청은 제75회 식목일을 앞두고 숲속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2020년도 나무 심기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서울 남산 면적의 77배에 달하는 2만3천ha에 5천만 그루를 심을 계획이며, 더불어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통해 국민이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는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영향 주요 임산물 수출 피해 최소화해 총력

산림청은 2월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총 59억 원 규모의 수출 지원 사업을 진행할 것임을 밝히는 한편, 코로나19 관련한 정부 대응 체계를 설명하고 건의 사항도 청취하였다. 또한, 임산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임산물 수출 동향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임을 말했다.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산림청 <Magazine 숲>은 독자 여러분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갑니다.

<Magazine 숲>을 읽고 난 후 인상 깊었던 기사에 독자 엽서, 이메일(magazinesup@korea.kr)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매 호 여섯 분의 독자 의견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2019 11+12월호 독자 의견



장우익 (강원도 동해시)

나무를 키워 모두와 함께 나누기 위해 숲으로 출근해 '아버지는 나무를 관리하고 아들은 아버지가 관리하는 나무 농장에서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신현섭·신도수 부자의 나무 사랑이야기가 감동적이었습니다.



엄윤주 (서울시 서대문구)

구십년의 역사를 품은 독일 가문비나무숲은 마치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 <나무를 심은 사람>이 이야기처럼 진잔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역사를 이어 후계림이 조성된다는 반가운 소식까지 접하니 더욱 뿌듯한 마음입니다.



이미연 (서울시 중랑구)

<숲에서 길을 찾는 사람들>에서 나무의사에 대해 이야기한 게 흥미로웠어요. 나무병원, 나무의사, 길가의 나무를 보면서 계절을 느끼고, 공기도 깨끗하게 해줘서 저는 평소에도 나무를 좋아하거든요. 그 나무를 치료해주는 나무 의사들에게 '일의 즐거움'을 불러본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춘성 (서울시 구로구)

이번 11+12월 숲에서 길을 찾는 사람들에서 만난 나무의사, 일반적인 동물과 달리 그 치료효과나 시간이 훨씬 더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으며 수종별 연령별로도 많은 차이가 있어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이 높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나무를 이해하고 그 특성에 따른 치료를 담당하는 나무 의사 분들에게 나무를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차수정 (전남 여수시)

<녹색도시>에 나온 대만 다안 삼림공원의 모습이 정말 부럽습니다. 뽕뽕한 빌딩 숲 사이에서 예쁘게 자리한 공원.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뒤덮인 도시에서 생명을 키우며 시민의 쉼터가 되고 있는데요. 밤에 야경도 정말 멋스럽고요. 우리나라도 과감히 준비된 철저한 계획으로 도시중심지에 이런 삼림공원도 유치해서 도시의 허파 역할을 물론 자연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김태희 (경기도 안산시)

30년간 나무의사로 살아오신 우종영 작가의 <바림>에 관한 글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나무'에게 이야기를 듣기만 했지 대화를 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무' 그리고 숲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인간과 같은 하나의 생명처럼 여기고 그와 대화로까지 이어진다면 그게 바로 진정한 배움인 것 같습니다.

산을 **타러** 가십니까?

산을 **태우러** 가십니까?

불법 흡연과 취사, 산림을 없애는 무기입니다.
산을 타러 가셨다면, 산은 태우지 마세요.